

등록번호	완산여자고등학교-4907
등록일자	2022. 5. 27.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공개

학교장	위원장
박현정	박현정

완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제2회 완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2. 5. 26. 16:00 완산여고 4층 항공실습실	
참석자명단	<p>출석위원: 박현정, 임순택, 이해란, 이병욱, 박정희, 심동영, 이기승, 남지숙, 원준희 (9명)</p> <p>불참위원: 백금성 (1명)</p> <p>참석: 교감 김경희, 교무부장 이승호, 행정실장 최락연, 임이랑</p>	
회의진행순서	<div>1. 개회</div> <div>2. 국민의례</div> <div>3. 학교장인사</div> <div>4. 위원장 개의 선언</div> <div>5. 보고사항</div> <div>6. 안건자문</div> <div>7. 폐회</div>	
상정안건	<div>1. 완산여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학부모 위원 추천(안)</div> <div>2. 2022학년도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안)</div> <div>3. 2023학년도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과개편 계획(안)</div>	
자문결과	<div>1. 완산여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학부모 위원 추천(안)</div> <p>가. 발언내용</p> <p>○ 행정실장 최락연: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학교법인 완산학원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완산여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3항을 보시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부모위원을 추천받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p>	

바랍니다.

위원 이병욱: 학부모 위원으로 000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이해란: 추천에 동의하며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추천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위원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000 위원님을 학교법인 완산학원 완산여자 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나. 결정 사항 : 000 위원 추천(찬성 9표, 반대 0표)

2. 2022학년도 2학년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 운영계획(안)

가. 발언 내용

○위원 이기승: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2학년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22.10.11.(화)~10.13.(수) 2박 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제주도입니다. 1인당 경비는 40만 원 내외로 교육청 지원 30만 원, 추가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 질의 사항

○위원 남지숙: 제주도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 이기승: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학생이 제주도를 선호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 임순택: 제주도까지 가는 교통편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위원 이기승: 오늘 학교운영위원회가 끝나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세부 계획 수립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결정 사항: 원안과 같이 심의(찬성 9표, 반대 0표)

3. 2023학년도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안)

가. 발언 내용

○위원 박정희: 도내 여학생 수 급감 및 상업계열 졸업생에 대한 시장 수요의 저하로 학과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학과 개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입학생 중 상업계열 취업을 희망하여 입학한 학생은 소수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여 입학한 학생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학업 분위기, 진로 등 여러 분야에서 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물론 공립 특성화 계열에서조차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교의 특성화 계열 중심으로서의 학과 개편은 무의미하며 임시방편에 불과해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교가 위치한 평화동 지역은 인구수가 많지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일반고 설립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본교 교원 전원이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위원 남지숙: 보통과로 학과 개편하는 것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특성화 학과를 찾아 도입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위원 박정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과 개편을 하게 되면 유지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사 수급에 대한 문제와 학생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학교가 살아남는 방법은 인문계 전환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올 신입생 모집이 재무회계과나 금융통상학과 학생 수는 9명씩입니다. 학급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20명은 되어야 좋고, 너무 작은 수의 학생은 수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현정: 그동안 다루었던 안건 중에 가장 결정하기 힘든 안건인듯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원준희: 전주상업고등학교도 설 자리가 없으니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하였듯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임순택: 일종의 종합고등학교로 가자는 말씀인데 예전에는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은행으로 취직이 되었지만, 지금은 고졸 취업처가 어렵게 되어 학생 모집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이병옥: 취업할 때 사회적 요건이 대학교 졸업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여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 이해란: 미리 배부해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학생들의 진로 희망조사 결과 대학 진학 희망 비율이 80% 이상으로 취업 희망 비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일반 보통과로의 학과 개편을 통해 대학 진학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동의합니다.

위원 남지숙: 공립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조차 학생 모집이 어려워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실정입니다. 완산여고가 특성화 계열 중심의 학과 개편을 한다는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입생 모집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정: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 모두 동의하셨고, 이미 교원 위원 모두도 찬성한 사항이니 원안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정 사항: 원안과 같이 심의(찬성 8표, 반대 0표)

기타 사항 -없음

폐회시간: 17:00

기록자:

임이랑 임(서랑)

확인자: 행정실장 최락연

최(락연)